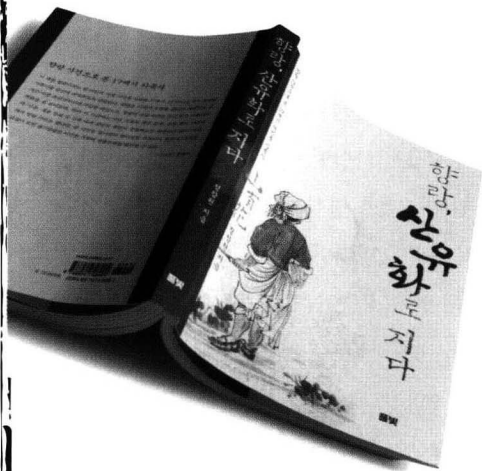


옆에서 본 저자 정창권

여성과 장애인,

역사학으로 이어진 소외받는 자에 대한 관심

설중환



태정泰井 정창권 선생이 지난번에는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를 내어 장안에 화제를 뿌리더니, 이번에는 《향량, 산유화로 지다》를 내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선시대의 일상적인 인물들을 현대에 환생시키는 그의 재주와 노력이 가상하다. 이번에 나온 책을 읽어보니 조선시대 한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을 마치 이웃집 여인을 대하듯이 아주 사실적으로 재생시켜 놓고 있다. 실제 우리에게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의 여인을 이만하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남모르는 노력과 고충이 뒤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향량 같은 주변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자가 직접 여러 가지 필요한 사실들을 일일이 찾아내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해 발품도 많이 팔고, 도서관에 파문해서 술한 고서적들과 씨름한 흔적이 역력하다. 그런 고생 때문에 이 책은 더욱 튼튼한 사실적 기반을 갖게 되었다

고 본다. 특히 이번 책은 지난번보다 더욱 세련되고 내용도 한층 풍부해졌다. 거기에다 저자의 단아하고도 다정다감한 문체는 이 책을 더욱 빛나게 한다.

내가 태정을 안 지가 어느새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촌티가 가지지 않은 학부 때는 물론이요, 나를 지도교수로 택했기에 석박사 과정도 계속 지켜 본 셈이 된다. 태정을 생각하면, 얼핏 떠오르는 늘 무언가 부지런히 공부하는 모습과 삶에 대한 진지한 자세다. 또 그는 학부 때부터 늘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듯이 보였다. 당시 보통 국문학과 학생이라면 문학에만 관심을 둘 터인데, 태정은 문학공부에도 열심이면서 동시에 당시 다른 학생들이 별 관심을 두지 않던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남들이 소홀히 하는 분야를 유달리 파고들었는데, 학부생이었을 때부터도 늘 주변인이랄까 변방인이랄까 우리 사회의 그늘에서 소외받고 버림받는 이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는 야학에 나가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며 그들에게 차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기도 하고, 실생활에서도 장애인 등 어려운 이들을 보듬었다. 그러더니 그는 학문에 있어서도 영웅적이지 않은 평민들과 서민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사실 우리사회나 학계는 지금까지 너무 남성 그것도 중심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면 한쪽으로만 편중되어 버린 장애를 앓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잃어버린 다른 한쪽을 완전히 찾아서 회복할 때 정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태정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이런 경종을 울려주었는지 모른다.

요즘에는 문화콘텐츠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아무나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지만, 내가 기억하기로 이런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그는 늘 옛날 서민들의 생각이나 구체적인 생활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태정은 우리 사회에서 문화콘텐츠를 개척한 가장 앞선 학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는 누구나가 말하듯이 문화와 정보화의 시대다. 그러나 아직 문화콘텐츠 분야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글을 쓴 설중환은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장으로 있다. 고전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관심이 많으며, 동양사상, 특히 한사상에 심취해 있다. 저서로는 《금오신화연구》《꿈꾸는 춘향》 등이 있다.

이 분야에는 할 일도 많고 또 누군가가 해야 할 것이다. 나는 특히 고전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고전문학의 세계는 문화콘텐츠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문화콘텐츠의 보고라 할 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기에 이런 문화적 내용이 더욱 풍부하다. 우리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화석을 지금 시대에 다시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계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럴 때 우리 사회의 문화생활은 한층 더 활력에 차게 될 것이다.

나는 태정이 부지런한 학자임을 알기에 지금 또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동시에 항상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란다. 그는 쓰기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우선 대중적인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다. 그의 관심이 주변인들이기에, 그의 문체까지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동시에 그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특이한 글쓰기를 시도하는 듯이 보인다. 이번 책도 픽션과 논픽션을 한 덩어리로 섞어 쓴 것이 하나의 본보기이다. 이런 특성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할 때도 나타났다.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의 논문 문체를 놓고 감론을박하면서 논문의 문체로 적당하지 아닌지 아주 오래 논의한 기억이 난다. 물론 나중에 그의 새로운 시도는 과거의 관례에 의해 좌절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시도가 신선하게 기억된다. 내가 알기로 태정은 이런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하여튼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내가 언젠가 정창권 선생의 호를 태정泰井이라 지어주면서 이런 글을 보낸 적이 있다.

“자네가 추구하는 세계가 소외받은 사람이 없이 누구나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세상이니, 이는 《주역》으로 말하면 지천태 地天泰卦에 해당하네. 바로 하늘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은 위로 올라 천지 음양의 기운이 화합하는 조화로운 세상 일세. 하늘의 기운이 땅 속까지 통하는 것이니, 자네의 그런 좋은 생각이 그들 속에 소외된 자에게까지 통하여 그들도 그들에서 벗

어나 밝은 하늘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물처럼 늘 넘쳐나기를 바라네. 우물은 물을 퍼낼수록 더욱 새로운 물로 가득 찬다네.”

나는 태정이, 큰 우물이 되어 많은 목마른 사람에게 늘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기원한다. *******

